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의료인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명기 32:4)

제13호 < 2007.9 >

발행인:이순남 | 편집인:정상혁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 전화 02-2650-5703~4 | 팩스 02-2653-8891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2008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공고

- 정시모집 입학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2008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요강이 9월 11일 홈페이지(www.ewhamed.ac.kr)를 통해 공고되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수시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까지 합쳐 선발한다. 선발과정은 M.D.과정(의무석사과정) 및 M.D.-Ph.D.복합학위과정이고,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심층구술면접전형 I 을 거쳐 M.D.과정(의무석사과정) 합격자를 선발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구술면접전형 II 를 실시하여 M.D.-Ph.D.복합학위과정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전형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8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입학설명회가 9월 13일 5시 SK텔레콤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대생 및 타교생 150여명이 참석하여 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모집요강, 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안내 등이 상세히 발표되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한 학생, 학부모 등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이화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순남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60여 년 동안 의료계를 선도해온 우수한 여성의료인들을 배출한 전통을 이어 받아, 국내 유일의 여성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 2의 도약의 첫 걸음에 동참하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쓰기를 기대 한다”며 지원을 독려했다.

◆ 이화의학전문대학원, 2008 의과대학 박람회 참여 결정

본 대학이 오는 2008년 5월 2일에서 4일까지 개최되는 제32차 종합학술대회 ‘전국 의과대학 박람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의협창립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한국 의료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촉발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대학은 박람회에서 부스홍보를 통해 대학 홍보 및 입시자문을 담당하게 되며, 기획 전시 및 심포지엄에 참여할 예정이다.

◆ 제2주기 의과대학 인정평가 2009년 참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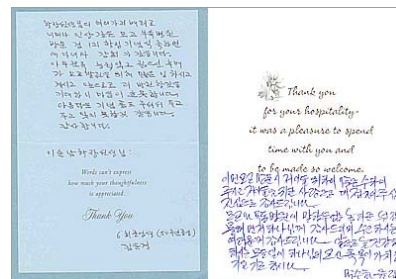
한국교육교육평가원 의과대학인정평가단이 시행하는 ‘제2주기 의과대학 인정평가’에 본 대학은 2009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국교육교육정보시스템(KOMSIS)에 2005년도 정보를 입력 완료하였으며 현재 2006년도 정보를 입력 중에 있다. 본 대학은 2000년 제1주기 의과대학인정평가에서 ‘인정’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동경여의대 Toshimasa Yoshioka 교수 특강 개최



본 대학과 국제 교류 협정을 맺은 동경여자의과대학 Yoshioka 교수가 9월 14일 오후 3시 김옥길홀에서 특강을 가졌다. Yoshioka 교수는 “How Japanese women are learning medicine”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일본의 여의사 양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날 강의에는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75명, 본과 2학년 92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학생 강의 후 5시30분부터는 교내·외 교수를 대상으로 “PBL in the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란 주제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순남 원장 외 교수 22명, 타교 교수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PBL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모교방문의 날 행사 방문 동창들, 감사 뜻 전달



지난 5월 30일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및 30주년을 맞는 동창을 위해 본 대학에서 마련한 ‘모교 방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던 동창들이 해외에서 감사카드를 보내와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박수화(6회, 졸업 50주년) 동창은 카드를 통해 “이번 모교 방문 때 저희를 위하여 사랑으로 대접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감을 밝혔고, 김은경(6회, 졸업 50주년) 동창은 “학장님의 배려가 너무나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모교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니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마음을 전해왔다.

◆ BK 21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증원 등

BK 21 사업단에 참여대학원생이 5명 증원되어 2학기 현재 BK21 사업단 소속의 참여대학원생은 총 41명(석사 21명, 박사 20명)이 되었다. 또한 이시내 교수가 퇴임하고 권복규 교수가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대신 조인호 교수 · 조수진 교수가 새롭게 참여하였다.

한편 최경규 사업단장이 사노파-아벤티스 코리아에서 유치한 산업체 지원금으로 약 180,000,000원 규모의 의학도서관 저널을 구입하였다.

♣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이화의대 선교 후원 기금, 대외협력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7~9월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등 약정 현황>

후원자	금 액	내 용
우경숙 동창회장	20,000,000원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김철수 치과 원장 (김문영 학생 학부모)	10,000,000원	
이순남 의학전문대학원장	5,000,000원	의과대학 장학금
슈어메디컬 이진철	5,000,000원	
총 계	40,000,000원	

◆ 2008년 달력 제작 진행

2007년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달력을 제작하여 동창,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는 본 대학에서 현재 2008년 달력을 제작 중에 있다. 구혜수, 정화순 교수가 지난 일 년 동안 준비한 동양화 작품으로 꾸며질 이번 달력은 10월 중 발행될 예정이며 벌써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약정 문의 Tel: 02) 2650-5707

♣ 학생 및 교수 소식

1. 학생 소식

◆ 의학과 3학년 임상실습 O.T 시행



2007년 의학과 3학년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는 OSCE가 의학과 B동 8층 (EMSC, PBL-Room) 에서 시행되었다. OSCE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10문항(CPX 1문항, OSCE 9문항)에 8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OSCE 시행 후, 오후 2시부터는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을 위한 'White Coat Ceremony' 순서가 마련되었다. 김종학 임상교무부장의 사회로 열린 White Coat Ceremony에서는 한재진 의학교육실장의 기획으로 일주일 동안 임상실습 O.T를 영상으로 담은 자료를 감상하였다. 이어 엄숙한 가운데 이순남 학장, 서현숙 의무부총장, 김양우 목동병원장, 심봉석 동대문병원장이 직접 의학과 3학년 학생 85명 모두



에게 흰 가운을 입혀 주었다. 마지막 순서로 다 같이 세계의사윤리선언문 선서를 하고 예비의사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 자유선택 실습지도 관련 사항 안내

2007학년도 자유선택실습지도 과목 및 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의 실습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 코스 지도교수님과 반드시 사전 상의를 거친 후 행정실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대문임상행정실 Tel: 02) 760-5242)

과명	코스명	지도교수명	인원	교육가능시기
생리학	폐손상의 병태생리 연구	이지희	2명	연중가능
미생물학	진단바이러스학	박혜경	2명	연중가능 (9,10월 제외)
	바이러스학	정영해	1명	연중가능 (방학제외)
	세포배양 및 분석기술	서주영	2명	연중가능
	면역진단법	우소연	2명	연중가능
예방의학	역학자료분석	박혜숙	2명	개별문의
내과학	non-invasive cardiac diagnosis	신길자	2명	방학기간 중
	임상심초음파학	박성훈	4명	연중가능 (11,12월 제외)
	신장내과	최규복	4명	연중가능
	소화기내과학	정성애	1-2명	개별문의
신경과학	뇌혈관질환(뇌졸중)두통의 진단과 치료	김용재	1-2명	정규실습기간 제외
산부인과학	부인종양학의 이론과 실제	김승철	2명	개별문의
정형외과학	관절성형학	김영후	4명	연중가능
	임상정형외과학	노권재	2명	연중가능
	정형외과학실습	김종오	2명	10월 중순이후 가능
	관절성형학	김준식	4명	연중가능
	척추질환	고영도	2명	연중가능
안과학	안과검사	최규룡	4명	연중가능
	사시 및 양안시	임기환	1명	연중가능
	안과 검사	전루민	4명	연중가능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	서현숙	1-2명	연중가능
	방사선종양학	이경자	1-2명	연중가능
성형외과학	성형외과술기	김양우	4명	연중가능
	상처 처치	범진식	2명	정규실습기간 제외
	미용성형수술의 개념과 최신지견	이지혁	5명내외	연중가능 (개별문의)
	레이저의 원리와 임상적용	이지혁	5명내외	연중가능 (개별문의)
	성형외과	강소라	2명	1,7,8월 제외
재활의학	뇌졸중재활	윤태식	2명	방학기간을 제외한 연중가능
	척추손상재활	배하석	2명	연중가능 (방학제외)
응급의학	임상독극물학	어은경	2명	개별문의

◆ 학생회 소식 ◆

학생회장 구현정

지난 8월 25일 안양천 부지에서 우리 학교의 살아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장님께서도 오시고, 교수님들과 많은 학생들도 참여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색 팀과 분홍 팀으로 나뉘어 각각 예쁜 티셔츠를 입고, 모두가 하나가 된 모습으로 여러 가지 경기를 했습니다. 피구에서 단연 돋보였던 학생들도 있었고, 5인 6각에서도 교수님과 함께 총 5명이 한

팀으로 “영차영차!” 구호를 불어가며 함께 달렸습니다.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많이 찾은 학생들은 준비된 예쁜 선물을 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전 골든벨!’에서는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사르며 살아남은 최후의 1인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미션계주, 줄다리기도 함께 하며 서로 협동하여 승리를 위해 힘쓰는 모습에서 여름의 열기보다 더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Infra Red’의 공연과 1학년 임지연 학생의 노래는 모든 학생들에게 멋지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300여 장의 사진과 함께 남은 지난여름 체육대회의 추억은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기에 값지게 기억될 것입니다.

2. 교수 동정

◆ 신임 교수 (2007년 9월 1일자)

소 속	이 름
의학과	조인호 교수
병리학 교실	송동은 교수
치과학 교실	방은경 교수
치과학 교실	박선형 교수
치과학 교실	박은진 교수

◆ 제11대 이화의료원장에 서현숙 이대목동병원장 선임 -목동병원장에 김양우, 동대문병원장에 심봉석 교수 임명



이화여대는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서현숙 목동병원장을 임명(8월 1일자) 하고 동대문병원장에 심봉석 교수(비뇨기과)를, 목동병원장에는 김양우 교수(성형외과)를 각각 임명했다.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대병원에서 초대 방사선종양학과장과 유방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임상의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교육연구부장 직을 수행하면서 행정능력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2005년부터 이대목동병원장으로 임명되어 올해 초 연임하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유 권 교수(소화기내

과), 목동병원 의무부장에는 김승철 교수(산부인과), 동대문병원 의무부장에는 신길자 교수(심장내과), 동대문병원 교육연구부장에는 홍영선 교수(내분비내과)가 각각 임명됐다.

◆ 문혜성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등재



산부인과 문혜성 교수가 그동안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7~2008년 International WHO'S WHO of Professional 판에 등재되며 또한 2008~2009년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special 10th anniversary Edition판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문혜성 교수는 자궁경부암의 침윤과 전이기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 및 국내 저명 학술지, 국내외 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상을 받는 등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 의료원 소식

◆ 이대목동병원, 고객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



이대목동병원이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구축한 ‘고객 중심 안내 시스템’ 오픈 행사를 9월 6일 갖고 고객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대목동병원은 고객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원무과 접수창구를 고객 눈높이에 맞추었으며 약제과에 복약상담실을 신설하고, 진료협력센터도 확장 이전하는 등 진료 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라는 친절 캠페인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직원 개인별 전화응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기에 ‘천천히 또박또박’이란 내용의 친절 스티커를 부착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친절상을 시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소아과, 소아청소년과로 명칭 변경

62년 동안 사용되어 온 소아과의 명칭이 지난 6월 27일부로 소아청소년과로 바뀌게 되었다. 그동안 소아과는 어린이들만 돌보는 과라는 인식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적었다. 이에 인식 전환을 위해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 동창회 소식

◆ 동창회 회장단, 의료원 상견례 가져

- 모교 발전 위해 노력하기로

7월 3일 오후 7시 서초대원에서 우경숙 신임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회장단과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순남 의학전문대학원장, 서현숙 목동병원장, 연규월 동대문병원장 등 의료원 인사들과 함께 만나 모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미생물학교실 서주영 교수

저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미국 동남부 앨라바마주의 버밍햄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앨라바마는 애틀란타가 주도인 조지아와 미시시피주의 사이에 있는 평원지대로 그 면적은 한반도만한데 4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한적한 곳입니다. 여름에는 서울보다 좀 덥지만 습하지 않아서 지낼 만하고,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봄과 가을이 길어서 꽃들이 만발하고 단풍이 아름다워 전원생활을 누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1960년대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발상지로 인종 차별이 심하다고 알려져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하였지만, 실제 생활하는 데에는 별다른 차별이나 특별한 문제는 겪어보지 못했고, 오히려 상류 백인 층이 모여 사는 동네는 전체 미국에서도 학군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 멀리까지 찾아가게 된 것은 그 동안 알고 지내던 한국인 교수님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연구내용과 주변 상황이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나서 석달 만에 다른 실험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가족을 이끌고 먼 미국 시골까지 온 입장에서 몹시 힘든 기간을 보내기도 했으며, 미생물학 시간에 강의만 해오던 대상포진을 실제 앓는 힘든 경험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새로 옮긴 실험실(Dr. Anupam Agarwal Lab, UAB)에서는 연구 여건도 양호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도 만들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CD4+CD25+ regulatory T cell (Treg)의 억제활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확립해서 기존에 잘못 알려진 특성, 즉 Treg은 체외에서 증식하면 억제활성을 잃어버린다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Treg을 체외에서 증폭시킬 수 있다면 자가 면역 질환이나 과민반응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잘못 알고 있던 특성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미진했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힘들었던 생활이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확립한 Treg 억제활성 정량분석방법은 여러 가지 약제나 물질의 면역조절활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조절되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저는 1994년부터 이화의대에서 근무한 이래 10여 년간 제대혈에서 분리한 조혈모세포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6년 전부터 제대혈 은행이 난립하고 제반 상황이 바뀌면서 연구에 필요한 제대혈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오사카의대와 인연을 맺어 일본을 오가면서 점막면역이나 세포이동성 연구와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야가 모두 경쟁력도 있고 전망도 밝은 분야이지만 우리 실험실에 가용한 장비와 인력을 감안하면 머릿속에서 가상연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 연수중 수행한 Treg에 관한 연구는 경쟁력 면에서도 유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실험실 여건에도 적합해서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 이 분야에 관해서 흥미가 있으시거나 좋은 연구계획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연락을 주셔서 함께 논의하고 창의적인 연구 과제를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1년의 세월이 언제던가 싶게 빨리 지나갔지만, 그 동안 미국에서 함께 어울렸던 유학생들, 이웃들,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 모두 정이 깊게 들어서 먼 곳에 마음의 고향을 하나 더 만들고 온 듯싶습니다. 오래 전에 이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진한 인간관계들이 오히려 그곳에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가족 모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했던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겨울과 여름에 갔던 올랜도 여행, 뉴욕까지의 동부지방 여행, 그리고 멕시코만 플로리다 해변의 설탕과도 같던 백사장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

<소식지 원고 모집>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heejee77@ewha.ac.kr)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홈페이지 (www.ewhamed.ac.kr) 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의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2650-5782)